

---

#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1년 12월호

---

## Contents

〈통계 요약〉 .....	1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2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5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9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10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13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15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18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23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26



## 〈통계 요약〉

### 한일 무역의 2021년 11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60,412	32.0	57,351	43.6	3,061
일본 부분	2,821	32.9	4,863	19.9	-2,042
일본 비중	4.7		8.5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1월 상황

	2020년 11월	2021년 11월	증감률
수출(백만¥, %)	6,113,036	7,367,085	20.5
수입(백만¥, %)	5,787,126	8,322,728	43.8
수지(백만¥, %)	325,910	-955,643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12월 24일)에 근거하여 작성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8월		2021년 9월		2021년 10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19,253	3,614	7,946	6,338	4,743	1,750
한국 부분(억¥)	25	95	-8	117	108	88
한국 비중(%)	0.1	2.6	-	1.8	2.3	5.0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10월 8일, 11월 9일, 12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11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11월	2021년11월	증감률		2020년11월	2021년11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61,764	94,358	52.8	전체	56,673	20,700	-63.5
방한 일본인	1,254	1,613	29.4	방일 한국인	2,825	2,000	-29.2
일본인 비중	2.03	1.72		한국인 비중	4.98	9.66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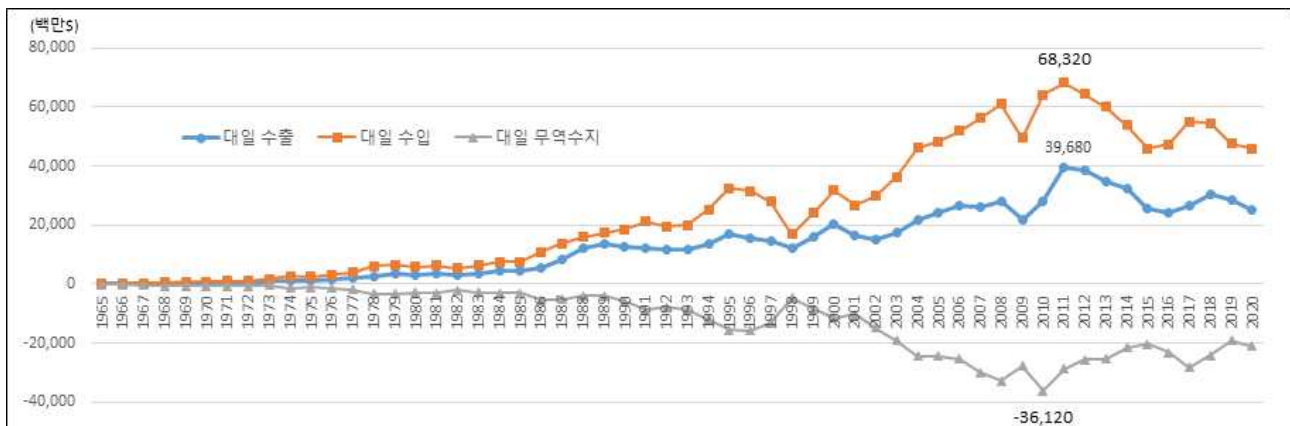
## I. 일본 무역 동향

### 1. 한일 무역 동향

####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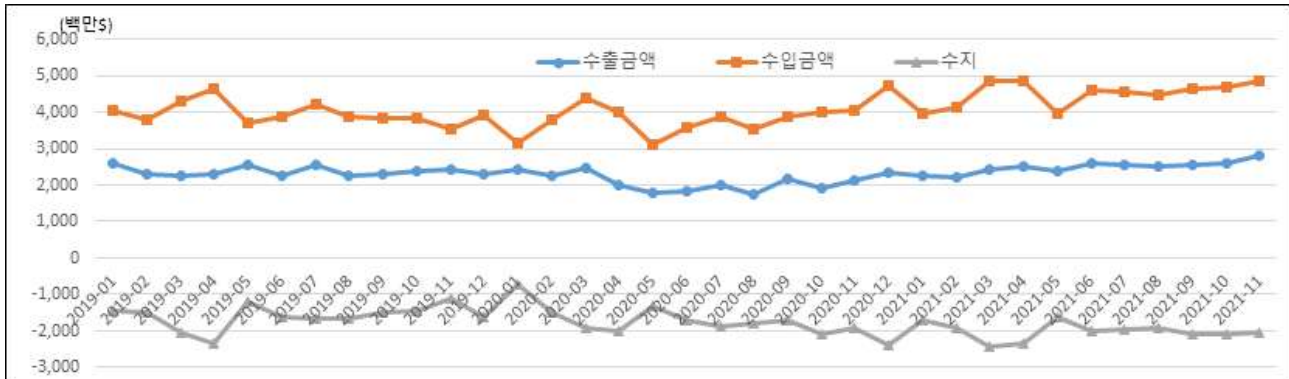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0년에는 대일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수출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11월에는 수출 수입 모두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대일 수출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11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대일 수입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11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5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또는 정체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1년 11월에는 전월대비 약간 감소하였음

## □ 한일 무역의 2021년 11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1년 11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일(對日)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2.9% 증가하였고, 대일 수입은 동(同) 19.9%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1년 11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60,412	32.0	57,351	43.6	3,061
일본 부분	2,821	32.9	4,863	19.9	-2,042
일본 비중	4.7		8.5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1년 11월에 한국전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32.0% 증가하여 604.1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출은 동(同) 32.9% 증가하여 28.2억 달러가 되었음
- 2021년 11월에 한국전체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43.6% 증가하여 573.5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입은 동(同) 19.9% 증가하여 48.6억 달러가 되었음

- 2021년 11월에 한국 전체 무역수지는 30.6억 달러 흑자였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20.4억 달러 적자였음
  - 2021년 11월에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7%였고, 수입 경우는 8.5%였음
- <표2> 및 <표3>은 2021년 11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경우는 9개 품목이, 수입 경우는 5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lt;표2&gt; 한국의 2021년 11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0년 11월(백만\$, %)			2021년 11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123	-11.9	-1,932	2,821	32.9	-2,042
1	광물성연료	231	-27.3	198	537	132.7	452
2	철강제품	276	-18.2	-95	389	41.2	-298
3	정밀화학제품	200	14.1	-163	279	39.3	-128
4	전자부품	140	-17.4	-490	195	39.1	-614
5	석유화학제품	86	-38.2	-232	156	82.4	-147
6	금속광물	110	36.0	48	146	32.7	100
7	산업용전자제품	132	-1.6	-109	129	-2.2	-102
8	농산물	104	-8.8	87	122	17.2	97
9	기계요소공구및금형	68	-14.9	-43	83	20.7	-42
10	산업기계	70	-8.7	-95	73	3.9	-73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lt;표3&gt; 한국의 2021년 11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0년 11월(백만\$, %)			2021년 11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4,054	15.1	-1,932	4,863	19.9	-2,042
1	전자부품	630	25.6	-490	809	28.5	-614
2	철강제품	370	-25.6	-95	687	85.8	-298
3	정밀기계	419	84.1	-380	533	27.2	-468
4	정밀화학제품	363	8.3	-163	407	12.2	-128
5	석유화학제품	317	25.6	-232	303	-4.4	-147
6	수송기계	220	20.7	-146	237	7.6	-185
7	산업용전자제품	241	4.5	-109	231	-4.3	-102
8	기초산업기계	215	35.7	-150	211	-2.1	-146
9	플라스틱제품	220	20.6	-158	208	-5.5	-145
10	산업기계	165	17.9	-95	146	-11.3	-73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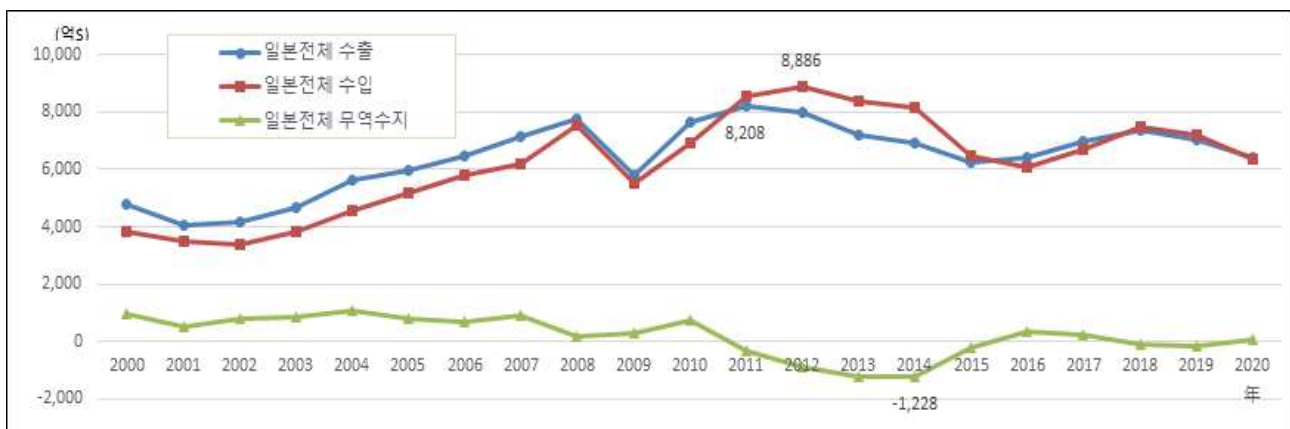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광물성연료(132.7%), 석유화학제품(82.4%) 등 9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산업용전자제품(-2.2%) 1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철강제품(85.8%), 전자부품(28.5%) 등 5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산업기계(-11.3%), 플라스틱제품(-5.5%) 등 5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를 보인 후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함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수지는 151억 달러 적자였음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400억 달러, 수입은 6,341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59억 달러 흑자였음

## □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1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11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무역수지 경우는 전년동월 흑자에서 당월 적자로 전환됨

&lt;표4&gt;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1월 상황

	2020년 11월	2021년 11월	증감률
수출(백만¥, %)	6,113,036	7,367,085	20.5
수입(백만¥, %)	5,787,126	8,322,728	43.8
수지(백만¥, %)	325,910	-955,643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12월 24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철강, 반도체등제조장치, 반도체등전자부품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0.5% 증가하여 7조 3,671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액화천연가스, 석탄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3.8% 증가하여 8조 3,227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3,259억 엔 흑자에서 당월 9,556억 엔 적자로 전환되었음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11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부 감소 지역도 있지만 수출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8.3%, 수입의 47.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3,776억 엔 흑자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1.4%, 수입의 23.8%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4,023억 엔이었음
  - 홍콩은 수출의 4.4%, 수입의 0.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홍콩 무역흑자는 3,136억 엔이었음
  - 대만은 수출의 7.2%, 수입의 4.3%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1,769억 엔이었음
  - 한국은 수출의 7.3%, 수입의 4.0%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는 2,022억 엔이었음
  - 미국은 수출의 17.6%, 수입의 10.3%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4,433억 엔이었음
  - 서유럽 전체에 대해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독일은 수출의 2.5%, 수입의 2.8%를 차지하였음
  - 영국은 수출의 1.4%, 수입의 0.8%를 차지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1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b>총액</b>	<b>7,367,085</b>	<b>100.0</b>	<b>20.5</b>	<b>8,322,728</b>	<b>100.0</b>	<b>43.8</b>	<b>-955,643</b>	<b>-</b>
<b>아시아</b>	<b>4,297,218</b>	<b>58.3</b>	<b>24.7</b>	<b>3,919,643</b>	<b>47.1</b>	<b>24.4</b>	<b>377,575</b>	<b>28.1</b>
중국	1,577,262	21.4	16.0	1,979,554	23.8	17.2	-402,292	22.1
홍콩	322,914	4.4	12.5	9,340	0.1	17.2	313,574	12.3
대만	533,395	7.2	35.5	356,490	4.3	51.6	176,905	11.5
대한민국	534,316	7.3	32.9	332,154	4.0	32.5	202,162	33.7
싱가포르	196,648	2.7	31.6	83,015	1.0	24.4	113,633	37.4
태국	305,164	4.1	20.8	258,268	3.1	11.2	46,896	130.7
말레이시아	162,915	2.2	31.1	223,338	2.7	54.2	-60,423	194.0
인도네시아	147,379	2.0	79.9	196,464	2.4	55.3	-49,085	10.0
필리핀	115,456	1.6	38.6	114,626	1.4	22.6	830	-
베트남	201,271	2.7	22.7	229,021	2.8	3.7	-27,750	-51.0
인도	115,359	1.6	15.0	69,709	0.8	95.0	45,650	-29.3
<b>대양주</b>	<b>229,351</b>	<b>3.1</b>	<b>56.3</b>	<b>700,108</b>	<b>8.4</b>	<b>114.8</b>	<b>-470,757</b>	<b>162.8</b>
호주	175,403	2.4	46.2	641,985	7.7	123.2	-466,582	178.3
뉴질랜드	30,398	0.4	58.6	27,915	0.3	35.6	2,483	-
<b>북미</b>	<b>1,374,863</b>	<b>18.7</b>	<b>9.9</b>	<b>1,003,111</b>	<b>12.1</b>	<b>42.4</b>	<b>371,752</b>	<b>-32.0</b>
미국	1,299,442	17.6	10.0	856,128	10.3	43.1	443,314	-23.9
캐나다	75,420	1.0	6.9	146,150	1.8	38.8	-70,730	103.8
<b>중남미</b>	<b>255,805</b>	<b>3.5</b>	<b>25.1</b>	<b>346,483</b>	<b>4.2</b>	<b>35.6</b>	<b>-90,678</b>	<b>77.9</b>
<b>서유럽</b>	<b>761,150</b>	<b>10.3</b>	<b>10.3</b>	<b>1,011,861</b>	<b>12.2</b>	<b>35.9</b>	<b>-250,711</b>	<b>363.6</b>
독일	186,152	2.5	17.5	236,922	2.8	33.9	-50,770	174.9
영국	102,802	1.4	1.6	65,056	0.8	14.0	37,746	-14.4
프랑스	71,659	1.0	42.4	168,777	2.0	102.3	-97,118	193.4
네덜란드	112,227	1.5	-2.1	25,935	0.3	10.3	86,292	-5.3
이탈리아	42,957	0.6	16.7	125,379	1.5	34.6	-82,422	46.2
<b>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b>	<b>173,400</b>	<b>2.4</b>	<b>37.4</b>	<b>289,779</b>	<b>3.5</b>	<b>94.2</b>	<b>-116,379</b>	<b>407.3</b>
<b>중동</b>	<b>192,265</b>	<b>2.6</b>	<b>6.7</b>	<b>892,254</b>	<b>10.7</b>	<b>134.6</b>	<b>-699,989</b>	<b>249.8</b>
<b>아프리카</b>	<b>83,031</b>	<b>1.1</b>	<b>21.8</b>	<b>159,489</b>	<b>1.9</b>	<b>107.3</b>	<b>-76458</b>	<b>772.6</b>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12월 24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1년 11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수입 양쪽에서 모든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는 광물성연료(166.4%), 원료별제품(44.4%) 등 나머지 9개 품목 모두 전년 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원료별제품(4.5%), 일반기계(4.2%), 기타(3.8%), 전기 기기(2.7%)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광물성연료(144.1%), 수송용기기(61.6%) 등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광물성연료(19.7%), 화학제품(5.1%), 원료별제품 (4.3%), 원료품(3.6%)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lt;표6&gt; 일본 전체 무역의 2021년 11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7,367,085	100.0	20.5	20.5	8,322,728	100.0	43.8	43.8
1 식료품	89,904	1.2	18.5	0.2	687,674	8.3	28.1	2.6
2 원료품	113,754	1.5	26.1	0.4	617,415	7.4	49.9	3.6
3 광물성연료	114,393	1.6	166.4	1.2	1,930,592	23.2	144.1	19.7
4 화학제품	906,630	12.3	20.2	2.5	923,440	11.1	47.3	5.1
5 원료별제품	891,264	12.1	44.4	4.5	789,555	9.5	45.9	4.3
6 일반기계	1,403,611	19.1	22.6	4.2	711,298	8.5	19.2	2.0
7 전기기기	1,334,512	18.1	14.3	2.7	1,303,341	15.7	9.8	2.0
8 수송용기기	1,491,620	20.2	4.3	1.0	359,888	4.3	61.6	2.4
9 기타	1,021,399	13.9	29.5	3.8	999,526	12.0	14.5	2.2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12월 24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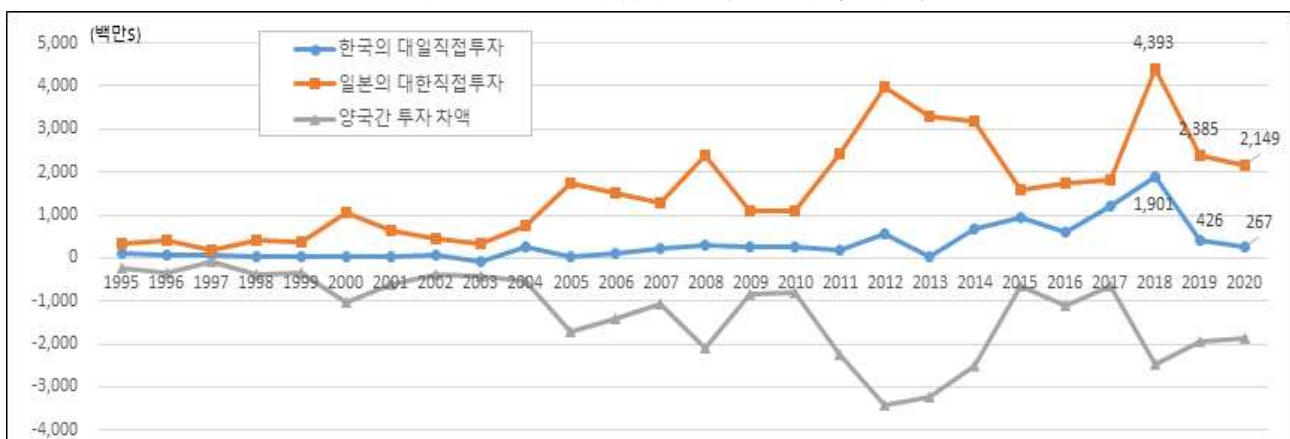
##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 및 2020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한일간 갈등 및 COVID-19가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20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는 2.67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659.77억 달러의 0.41%를 차지하였음
- 2020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자는 21.49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1,711.23억 달러의 1.26%를 차지하였음

##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8월		2021년 9월		2021년 10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19,253	3,614	7,946	6,338	4,743	1,750
한국 부분(억¥)	25	95	-8	117	108	88
한국 비중(%)	0.1	2.6	-	1.8	2.3	5.0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10월 8일, 11월 9일, 12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9월 7,946억 엔에서 10월 4,743억 엔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9월에 회수가 실행보다 많아 -8억 엔으로 마이너스였으나, 10월에는 108억 엔으로 플러스가 됨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9월 6,338억 엔에서 10월 1,750억 엔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1년 9월 117억 엔에서 10월 88억 엔으로 감소하였으나,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1.8%에서 5.0%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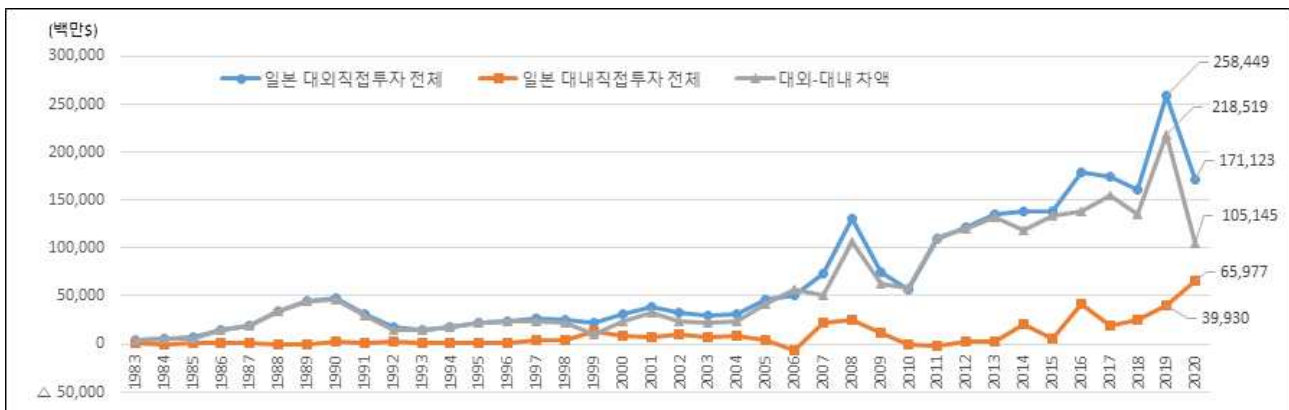
##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584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99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85억 달러에 달했음
- 한편 2020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711억 달러로 되었지만, 대내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상최대인 660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1,051억 달러로 되었음
- 2020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59억 달러 흑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 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1년 10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4,743억 엔이었으며,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1,750억 엔이었음
-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4,743억 엔(실행 34,076; 회수 29,334)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아시아(63.2%), 북미(13.9%), 유럽(12.3%), 중남미(11.6%), 아프리카(4.1%)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고, 대양주와 중동은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베트남(1,792억 엔), 중국(824억 엔), 영국(509억 엔), 독일(478억 엔), 미국(402억 엔) 등에 순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음
-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1,750억 엔(실행 31,348; 회수 29,598)으로 플러스였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 경우는 지역별로 북미(231.9%), 대양주(22.%)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많았으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경우는 순투자가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내직접투자 플러스 순투자가 큰 곳은 미국(4,057억 엔), 프랑스(764억 엔), 싱가포르(425억 엔), 호주(411억 엔) 등이었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1년 10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b>합계</b>	<b>34,076</b>	<b>29,334</b>	<b>4,743</b>	<b>100.0</b>	<b>31,348</b>	<b>29,598</b>	<b>1,750</b>	<b>100.0</b>
<b>아시아</b>	<b>10,369</b>	<b>7,371</b>	<b>2,998</b>	<b>63.2</b>	<b>6,217</b>	<b>6,685</b>	<b>-468</b>	<b>-26.7</b>
중국	1,202	379	824	17.4	622	1,220	-599	-34.2
홍콩	392	211	180	3.8	1,177	1,418	-241	-13.8
대만	191	71	120	2.5	33	14	19	1.1
한국	169	61	108	2.3	142	55	88	5.0
싱가포르	5,368	6,103	-735	-15.5	4,157	3,733	425	24.3
태국	537	270	267	5.6	64	218	-154	-8.8
인도네시아	195	97	98	2.1	0	6	-5	-0.3
말레이시아	147	38	109	2.3	19	20	-1	-0.1
필리핀	90	36	54	1.1	1	2	-1	-0.1
베트남	1,850	58	1,792	37.8	0	—	0	0.0
인도	169	16	153	3.2	0	—	0	0.0
<b>북미</b>	<b>10,090</b>	<b>9,433</b>	<b>657</b>	<b>13.9</b>	<b>12,032</b>	<b>7,974</b>	<b>4,058</b>	<b>231.9</b>
미국	9,354	8,953	402	8.5	11,984	7,926	4,057	231.8
캐나다	736	481	255	5.4	48	47	1	0.1
<b>중남미</b>	<b>2,063</b>	<b>1,513</b>	<b>551</b>	<b>11.6</b>	<b>144</b>	<b>163</b>	<b>-19</b>	<b>-1.1</b>
멕시코	180	172	8	0.2	—	4	-4	—
브라질	97	218	-121	-2.6	—	—	—	—
케이만제도	315	267	48	1.0	92	147	-55	-3.1
<b>대양주</b>	<b>172</b>	<b>387</b>	<b>-214</b>	<b>-4.5</b>	<b>768</b>	<b>374</b>	<b>393</b>	<b>22.5</b>
호주	77	290	-213	-4.5	784	373	411	23.5
뉴질랜드	63	91	-28	-0.6	1	0	1	0.1
<b>유럽</b>	<b>10,797</b>	<b>10,213</b>	<b>585</b>	<b>12.3</b>	<b>12,183</b>	<b>14,251</b>	<b>-2,068</b>	<b>-118.2</b>
독일	2,492	2,014	478	10.1	1,574	1,508	66	3.8
영국	1,928	1,419	509	10.7	5,596	5,856	-260	-14.9
프랑스	218	305	-87	-1.8	1,909	1,145	764	43.7
네덜란드	723	411	311	6.6	1,396	1,356	40	2.3
이탈리아	125	185	-60	-1.3	97	95	2	0.1
벨기에	1,466	1,601	-135	-2.8	443	454	-12	-0.7
룩셈부르크	1,623	2,297	-673	-14.2	141	19	122	7.0
스위스	199	20	178	3.8	602	2,823	-2,222	-127.0
스웨덴	97	70	26	0.5	27	52	-25	-1.4
스페인	18	8	10	0.2	157	152	5	0.3
러시아	39	25	14	0.3	—	—	—	—
<b>중동</b>	<b>110</b>	<b>139</b>	<b>-29</b>	<b>-0.6</b>	<b>5</b>	<b>1</b>	<b>3</b>	<b>0.2</b>
<b>아프리카</b>	<b>475</b>	<b>279</b>	<b>196</b>	<b>4.1</b>	<b>0</b>	<b>150</b>	<b>-150</b>	<b>-8.6</b>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12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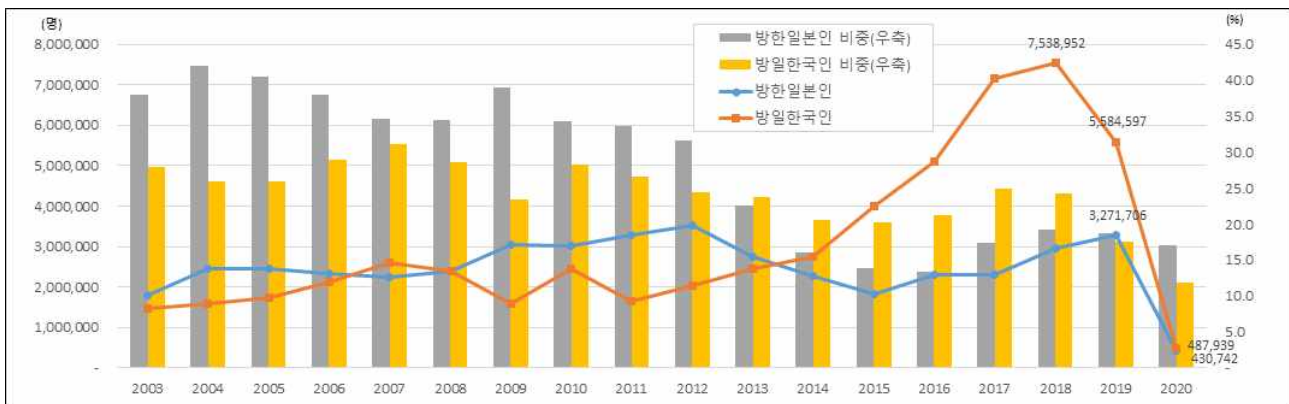
###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급감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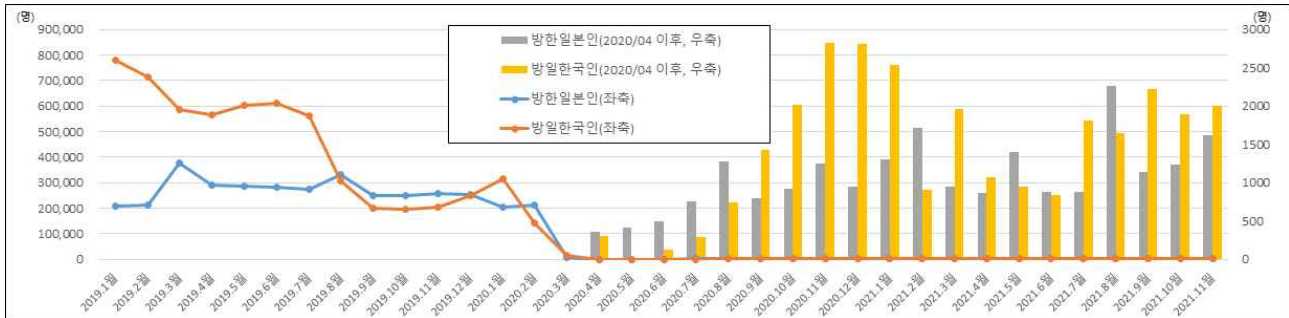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약 327만 명에 달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3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약 1,750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252만 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약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약 558만 명이 되었고,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9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약 3,188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412만 명)



##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월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1,299명, 2월 1,719명, 3월 949명, 4월 872명, 5월 1,403명, 6월 875명, 7월 881명, 8월 2,258명, 9월 1,142명, 10월 1,237명, 11월 1,623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2,535명, 2월 910명, 3월 1,956명, 4월 1,076명, 5월 950명, 6월 835명, 7월 1,808명, 8월 1,647명, 9월 2,224명, 10월 1,900명, 11월 2,000명)

## □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11월 상황

- <표5>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11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류인원이 COVID-19로 전년동월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방한 일본인은 증가한 반면, 방일 한국인은 감소하였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1년 11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0년11월	2021년11월	증감률		2020년11월	2021년11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61,764	94,358	52.8	전체	56,673	20,700	-63.5
방한 일본인	1,254	1,613	29.4	방일 한국인	2,825	2,000	-29.2
일본인 비중	2.03	1.72		한국인 비중	4.98	9.66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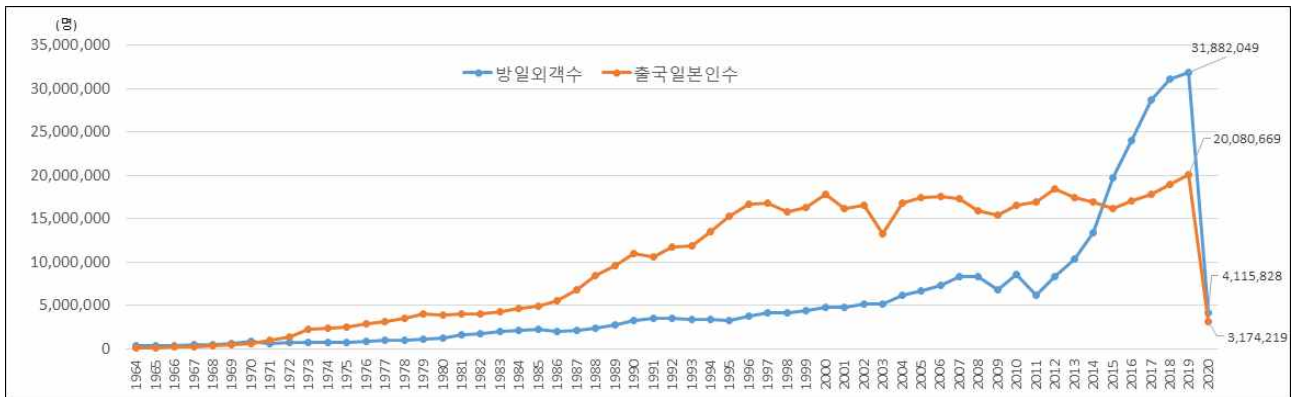
- 2021년 11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94,35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8% 증가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1,61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4% 증가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20년 11월 2.03%에서 2021년 11월 1.72%로 감소하였음
- 2021년 11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20,7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5% 감소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2%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20년 11월 4.98%에서 2021년 11월 9.66%로 증가하였음

##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20년에 약 3,188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일본출국자수 약 2,008만 명보다 약 1,180만 명 더 많음
-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인해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여 각각 약 412만 명과 약 317만 명으로 됨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 일본 인적교류의 2021년 11월 상황

- <표10>은 2021년 11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전체 수가 COVID-19 영향으로 전전년동월대비로는 크게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도 감소하였음
- 2021년 11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20,700명으로 전전년동월(2,441,274명)대비 99.2% 감소하였고, 전년동월(56,673명)대비 63.5% 감소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2,000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29.2%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3,200명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82.4%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400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66.0%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홍콩인 수는 100명으로 전체의 0.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77.9%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베트남인 수는 1,800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87.8%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인도인 수는 1,600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54.1%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1,400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28.3% 증가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1년 11월 상황

국가·지역	2019년 11월		2020년 11월		2021년 11월		전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전체	2,441,274	100.0	56,673	100.0	20,700	100.0	-99.2	-63.5
한국	205,042	8.4	2,825	5.0	2,000	9.7	-99.0	-29.2
중국	750,951	30.8	18,147	32.0	3,200	15.5	-99.6	-82.4
대만	392,102	16.1	1,177	2.1	400	1.9	-99.9	-66.0
홍콩	199,702	8.2	453	0.8	100	0.5	-99.9	-77.9
태국	140,265	5.7	1,035	1.8	200	1.0	-99.9	-80.7
싱가포르	65,295	2.7	161	0.3	100	0.5	-99.8	-37.9
말레이시아	64,987	2.7	430	0.8	100	0.5	-99.8	-76.7
인도네시아	37,213	1.5	3,424	6.0	700	3.4	-98.1	-79.6
필리핀	64,763	2.7	1,704	3.0	500	2.4	-99.2	-70.7
베트남	41,892	1.7	14,730	26.0	1,800	8.7	-95.7	-87.8
인도	14,863	0.6	1,038	1.8	1,600	7.7	-89.2	54.1
호주	48,327	2.0	255	0.4	200	1.0	-99.6	-21.6
미국	148,993	6.1	1,091	1.9	1,400	6.8	-99.1	28.3
캐나다	33,316	1.4	134	0.2	400	1.9	-98.8	198.5
멕시코	6,494	0.3	57	0.1	50	0.2	-99.2	-12.3
영국	37,709	1.5	304	0.5	500	2.4	-98.7	64.5
프랑스	24,290	1.0	473	0.8	300	1.4	-98.8	-36.6
독일	19,525	0.8	343	0.6	300	1.4	-98.5	-12.5
이탈리아	12,350	0.5	131	0.2	200	1.0	-98.4	52.7
러시아	13,142	0.5	671	1.2	300	1.4	-97.7	-55.3
스페인	10,535	0.4	101	0.2	90	0.4	-99.1	-10.9
중동지역	9,836	0.4	163	0.3	100	0.5	-99.0	-38.7
기타	99,682	4.1	7,826	13.8	6,160	29.8	-93.8	-21.3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1년 12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12월 21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19년	2020년	2021년 1-3월	2021년 4-6월	2021년 7-9월	2021년 8월	2021년 9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0.2	-4.5	-1.8	7.3	1.2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0.6	-1.9	-0.5	2.6	1.8	2.0	1.2	0.5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5.8	-9.5	5.2	22.7	21.1	27.4	16.5	10.1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90.5 -4.0	81.5 -9.9	83.0 -1.6	87.5 8.1	87.6 7.2	85.5 7.5	84.5 4.3	89.2 10.4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10.1	5.5	9.1	11.6	-9.3	1.2	-13.3	-14.9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4.3 -1.1	-11.7 -6.4	4.6 6.0	34.4 5.1	13.6 7.9	13.7 14.5	3.2 7.5	-2.6 P -3.0	P 4.7 P 6.1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3.0	-10.4	-1.0	19.9	5.8	8.8	-2.3	-4.1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3.5	-27.3	26.0	93.9	35.1				
<도산> 기업도산건수(건) 증감률	8,383 1.7	7,773 -7.2	1,554 -28.1	1,490 -18.8	1,447 -28.4	466 -30.1	505 -10.6	525 -15.8	510 -10.3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3	2.8	2.8	2.9	2.8	2.8	2.8	2.7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0.2 0.5	-1.2 0.0	-0.3 -0.5	4.6 -0.8	6.1 -0.2	5.9 -0.4	6.5 0.2	8.3 0.1	P 9.0
<금융> 닛케이평균주가(엔) 환율(엔/\$)	21,697 108.99	22,705 106.73	29,001 106.09	28,983 109.50	28,553 110.09	27,692 109.84	29,893 110.17	28,586 113.10	29,370 114.13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1년 10월, 11월, 12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최근 회복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인 ‘가계조사’ (10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3.4% 증가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10월)에서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대비 1.0% 증가하였음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보합권대로 되어 있고, 소비자 심리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신차판매대수는 및 가전판매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여행에서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외식은 최근 회복되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개인소비는 최근 회복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경제사회 활동이 정상화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회복해 갈 것으로 기대됨

○ 설비투자는 회복에 답보 상태가 보임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7-9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민간설비투자는 2021년 7-9월기에 전기대비 2.6% 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기대비 1.7% 감소, 비제조업이 전기대비 3.0% 감소하였음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로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12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2021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개선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이고 있고,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기업수익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회복 쪽으로 향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건설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자가주택 착공은 회복되고 있음
- 임대주택 착공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분양주택 착공은 최근 약세임
- 총 호수는 10월에 전월대비 5.6% 증가하여 연율 89.2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당분간 보합 상태로 추이해 갈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약해지고 있음
  - 10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1.0% 감소, 11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0.8% 감소, 10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2.7% 감소하였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약세로 추이해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점차 보정예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수입은 최근 약세이며,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되고 있음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쪽 수출은 최근 약세, 아메리카 및 EU 쪽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 기타 지역 쪽 수출은 약세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11월 방일외객수는 2019년 대비 99.2% 감소하였음
  - 수입은 최근 약세인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최근 약세, 아메리카로부터의 수입은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이고, EU로부터의 수입은 최근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임
  -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되어 있는데, 10월 무역수지는 수입금액 감소로 적자폭이 축소되었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되었음

####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임
  - 광공업생산지수는 10월에 전월대비 1.8% 증가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10월에 전월대비 0.6% 증가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11월은 전월대비 9.0% 증가, 12월은 전월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생산용 기계는 둔화하고 있고, 전자부품·디바이스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 쪽으로 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외경제 동향 및 공급 측면의 제약에 따른 하향 리스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황에 관해 의견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제3차 산업 활동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이 남아 있는 가운데 비제조업의 일부에서 약세가 보이지만 회복되고 있으며,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도산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법인기업통계계보(7-9월기)에 따르면, 2021년 7-9월기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35.1% 증가, 전기대비 7.4% 감소함
  - 기업의 업황 판단에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도산 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데, 10월 525건 이후 11월 510건으로 나타남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이 남아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약세로 움직이고 있지만, 구인 등에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10월에 전월대비 0.1% 포인트 낮아져 2.7%로 됨
  - 노동력 인구, 취업자 수 및 완전실업자 수는 감소하였음
  - 고용자 수는 보합권내에 있으며, 신규구인 수는 수준은 여전히 낮지만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유효구인배율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으며, 제조업 잔업시간은 최근 감소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총액은 최근 보합권내로 되어 있으며,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음
  - 일본은행 短觀(12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부족초과로 나타남
  - 또한 당장의 상황에 관해서는 일일 유효구인건수나 민간의 구인 동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기대됨

####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기업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11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0.6% 상승이고, 수입물가(엔 기준)도 상승하고 있음
  - 소비자 물가 기조를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최근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11월에는 전월대비 1.7% 포인트 상승하여 87.5%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당분간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하락 후 상승하였고, 엔/달러 환율은 엔고 후 엔저 방향으로 추이하였음
  - 주가는 28,700엔대에서 27,700엔대로 하락하였다가 28,500엔대까지 상승함
  - 엔/달러 환율은 114엔대에서 112엔대로 엔고 방향으로 추이한 이후에 113엔대까지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금리는 -0.05%대에서 -0.00%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엄중함이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0.5%(11월) 증가하였음
  -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9.3%(11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대비 4.0%(11월) 증가하였음

#### □ 일본 정부의 2021년 12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12월 21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하고,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의 추진을 위해 노력함
- COVID-19 감염증에 대해서는 최악 사태를 상정하여 해외유입 대책에 만전을 기함
  - 다음의 감염확대를 감안하여 의료제공체제를 확보함과 더불어 백신, 검사, 먹는 치료약의 보급을 통해 예방, 발견부터 조기치료까지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강화함
  - 백신의 추가접종에 관해서는 기존 백신의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효과 등을 일정 정도 예상한 다음에 가능한 한 사전 준비를 함
  - 또한 백신 및 검사팩키지를 활용한 행동제한 완화 방침에 근거하여 통상적인 생활에 가까운 경제사회활동의 재개를 준비함
- 또한 경기의 하향 리스크에 충분히 주의하면서 당장의 경제가 지탱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감염이 재확대될 경우에도 국민의 생활과 고용 및 사업을 지켜내고 경제의 바닥 갈라짐을 방지함
  - 또 ‘새로운 자본주의’를 기동시키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여 경제를 자율적인 성장궤도에 올려놓음
  -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 및 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대책’ (11월 19일 각의 결정)을

구체화하는 2021년도 보정예산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

- 또 ‘202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12월 3일 각의 결정)과 향후 책정할 ‘2022년도의 경제전망과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적 태도’ 도 고려하여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무리함
-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12월 17일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계속 지원해 간다는 관점에서 COVID-19 대응 자금조달지원 특별프로그램의 일부 연장을 결정하였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실행하여,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함

##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 일본정부 코로나 대책 및 경제 동향

- 코로나 관련 동향
  - COVID-19 백신 3차 접종이 12월 1일 시작되었으며, 추가 접종 대상을 의료종사자에서 노인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임
  - 일본정부는 2차 접종을 한 지 8개월이 지난 인원수에 따라 백신을 시정촌(市町村) 등에 배분할 방침임
  - 12월 2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감염 상황의 변화, 지자체 준비 상황, 백신 공급 능력 등을 감안하여 8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접종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했음
  - 오미크론의 감염 확대에 대한 유입방지 대책 강화로 국토교통성은 12월말까지 1개월간 일본에 도착하는 모든 국제선에서의 새로운 예약을 정지하도록 항공사에 요청했으나, 12월 2일 국내외 항공사에 대한 요청을 취소했음
- 일본의 국내 경제 동향
  - 일본 재무부 법인기업 통계조사에 의하면 2021년 7~9월 일본 국내설비투자가 2020년 동기간보다 1.2% 늘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임
  - 기업의 경상이익은 16조 7,508억 엔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35.1% 증가하여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자동차용 전자부품 수요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

로 도매업 수익이 늘었기 때문임

- 12월 8일 재무성이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속보)에 의하면 경상수지 흑자는 1조 1,801억 엔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39.4% 감소하였음
-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수지 중 무역수지의 경우 COVID-19로 인한 반도체 부족과 같은 공급망 문제로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여 수출액의 증가폭이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자원가격이 급등하여 수입액이 늘었음
- 내각부가 12월 7일 발표한 10월 경기동향지수의 속보치에 의하면, 경제동향을 나타내는 일치지수는 전월대비 1.2포인트 상승하여 4개월 만에 개선되었음
- 일본은행이 12월 10일 발표한 11월 기업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0% 상승하여 오일쇼크가 마무리된 1980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음
- 에너지 가격 급등을 기점으로 한 기업 물가 상승이 다품목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석유 등 제조 공정의 상위 제품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중간 제품과 최종 제품에서도 가격 인상이 확산되고 있음

(출처: NHK, 2021.12.01.; 닛케이신문, 2021.12.01., 2021.12.07., 2021.12.08., 2021.12.10.; 마이니치신문, 2021.12.03.; 산케이신문, 2021.12.02.)

## □ 일본정부 경제 관련 정책

### ○ 통신산업, 방송산업 관련 정책

- 일본정부는 2020년도부터 기지국이나 송수신 장치 등 5G 관련 설비투자에 세제 우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제 지원책을 축소하려고 함
- 전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휴대폰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3년 기한으로 우대를 중단한다고 2022년도의 여당 세제개정 대강(大綱)에 명기함
- 일본 총무성은 12월 3일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방송 사업자 등에 의한 외자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책 방안을 마련했음
- 구체적으로는 심사를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외자 출자 상황이나 외국인 임원 변경을 그때마다 신고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 후에도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하는 구조를 마련한다고 하고 있음
- 이러한 안에 대하여 의견을 모은 뒤, 2022년 통상 국회에 제도 변경에 필요한 법안을 제출하고 싶다고 하고 있음

- 인권외교 태세 강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 일본 외무성은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자리를 2022년 신설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며, 기업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대처도 추진함
  - 유럽과 미국에서는 공급망 상의 인권침해를 파악하여 예방하는 ‘인권 듀 딜리전스’의 법 정비 등이 진행되고 있음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022년 1월부터 발효하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권이 생김
  - 한국도 필요한 수속을 끝내고 2022년 2월부터 협정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일본으로서는 한국과의 첫 경제동반자협정임
  - 일본 정부는 RCEP에 의해 관세의 삭감, 철폐 등이 진행되면 최종적으로는 GDP가 2.7%(15조 엔) 늘어날 것으로 시산함
- 에너지산업, 탈탄소화 관련 정책
  - 경제산업성 대신은 12월 3일 기자 회견에서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효율적인 전력의 사용이나 에너지 절약에 협력해 주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음
  - 2022년 1~2월에는 도쿄 지역에서 전력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쉬고 있는 화력발전소를 가동시킨다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탈탄소를 위한 기업들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가치가 있다고 보고 크레딧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시장을 창설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 책정에 나섰음
  -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설치하였으며, 심의회에서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크레딧의 종류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조건, 가격 결정 방식 등에 대해 2022년 봄에 지침을 정리하기로 하였음
  - 2020년 일본 국내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11억 4,900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5.1% 감소하여 배출량 산정이 시작된 1990년 이후 가장 적게 배출되었음
  - 배출량 감소는 COVID-19 감염 확대에 의한 경제활동의 정체가 큰 요인을 보여줌
  - 부문별로는 공장 등 산업부문이 전년도 대비 8.3% 감소, 자동차 등 운수부문은 10.2% 감소하였으며, 가정 부문은 외출 자숙이나 텔레워크 확대 등의 영향으로 4.9% 증가하였음
  - 한편, 일본 정부는 아시아 지역의 단계적 탈탄소화 지원을 위하여 각국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책정 지원 사업 강화에 나서기로 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각국의 실정에 맞추어, 비용이 저렴한 저탄소 기술로부터 단계

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촉구함

- 경제산업성 등은 12월 26일 일본과 중국 양국의 정부 대표와 민간기업이 환경 분야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포럼을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했으며, 에너지 절약과 탈탄소화 기술에 대한 총 11건의 협력 프로젝트에 양국 기업과 관련 단체가 서명했다고 밝힘

(출처: 닛케이신문, 2021.12.03.; NHK, 2021.12.03., 2021.12.07., 2021.12.08., 2021.12.10.; 산케이신문, 2021.12.01., 2021.12.26.; 아사히신문, 2021.12.21..)

###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 경제안보 관련 동향과 탈탄소화 관련 기업 동향

##### ○ 경제안보리스크 관련 기업 대응

- 히타치제작소의 고지마케이지사장은 12월 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안보 문제를 포함한 각종 리스크를 글로벌 차원에서 통제하는 부서를 신설할 계획을 밝힘
- 고지마사장은 반도체의 조달 등 여러 국가와 지역을 걸치는 공급망의 문제를 특히 염려하고 있는 리스크로 들었으며, 신설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 시정에도 임한다고 하였음

##### ○ 탈탄소관련 기업 동향

- 대기업 음료 메이커들은 석유로부터 나오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페트병, 컵 등 환경을 배려한 새로운 용기 개발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산토리홀딩스의 경우 우드칩과 사탕수수 찌꺼기를 원료로 한 100% 식물유래 페트병 시제품을 개발해 12월 3일 공개하였음
- 아사히그룹홀딩스는 감자 전분을 주원료로 해 사용한 뒤 안주로 먹을 수 있는 컵이나, 간벌재 등으로 만들어진 텀블러 같은 환경을 배려한 용기를 개발하고 있음
- 이러한 제품 보급 촉진을 위해 기획부터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회사를 다음 달 설립할 예정임
- 한편, 탈탄소화와 관련하여 투자계획을 밝히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수소·전기자동차 등 유망산업에서의 비즈니스 확대 및 자사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각국 정부가 카본 뉴트럴 실현을 위해 정책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임

미쓰비시상사	2030년까지 2조엔 투자.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암모니아 관련을 중점분야로
닛산자동차	EV개발 등에 향후 5년간 2조엔 투자
미쓰이부동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확충 등으로 2030년까지 1천억 엔 이상 투자
상선미쓰이	향후 3년간 투자규모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 2천억 엔에서 증가시킬 방향으로 검토. LNG연료선 도입 등 추진
미쓰비시케미칼HD	2030년까지 1,000억 엔을 바이오수지 제조설비 도입 및 클린연료 전환에 활용
히타치제작소	2030년까지 과거 10년보다 340억 엔 많은 840억 엔 투자해 자사의 CO2 배출을 삭감
도쿄가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약 6천억 엔을 포함, 7천억 엔의 탈탄소화 관련 투자를 실시

### 그린투자와 관련된 주요 기업의 움직임

(출처: NHK, 2021.12.03.; 산케이신문 2021.12.01., 2021.12.09.)